

01 교회소식

사랑으로 충만한 유럽 선교

만민의 사역을 사모하는 유럽 영혼들을 위해 이희선 목사가 5개국 순회 선교 출장을 다녀왔다.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13

아브라함의 선 (1)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관용과 양심의 마음을 지녔으며, 사심이 없고 정직하며 성실한 선의 마음이 있었다.

03 기획특집

영적인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04 간증

주님께서 이뤄주신 아름다운 가정

가족의 사랑과 인내로 180도 변화된 김환상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과 주님께서 아들을 키워 주신다는 강보금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80호 2013년 5월 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유럽의 영혼들에게 비둘기 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 부목사 이희선 목사와 선교팀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있었던 프랑스·벨기에·라트비아·에스토니아·불가리아 유럽 5개국 선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첫 일정은 17일 프랑스만민교회(담임 강대웅 선교사) 성령충만기도회로 있었다. 19일 벨기에 에노만민교회(담임 노현숙 선교사) 성도 가정 심방에 이어 20일에는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감사 이희선 목사(사진 1)는 서울 만민중앙교회가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를 가진 초대형 교단으로 성장한 비결에 대해 증거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역에 대해 놀라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했다(사진 4).

21일 주일에는 에노만민교회 창립예배가 있었는데, 이 목사는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의 행함으로써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오후에는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려 성도들이 질병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다.

23일 북유럽 라트비아 쿨디가 교회 집회(사진 5)와 24일 에스토니아 탈린 교회 집회(사진 2, 3)에서는 많은 성도가 이희선 목사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응답과 치료를 받았으며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26일에는 불가리아에서 열린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목사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에 대해 증거했다.

매 집회마다 열정 대해 회중찬양과 특송으로 영광 돌린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은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고 은혜와 감동을 선사하며 가는 곳마다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사진 6).

선교팀은 이번 출장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사진 7)을 비롯, 5개국을 방문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유럽에 다시 한 번 복음의 불씨를 지피고 돌아왔다. 비둘기 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로 유럽 영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재록 목사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2 <공부 잘하는 비결> 발간

예쁜 꽃들이 만발한 5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담은 어린이들에게 공부가 더 이상 '고민'이 아닌 재미가 될 수 있도록 특별 기획한 아동학습 교재가 발간됐다.

이재록 목사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2 <공부 잘하는 비결>은 IQ가 낮아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 이 교재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했다.

'공부는 왜 해야 할까?', 'IQ를 높일 수 있다구?', '숨은 재능 찾기', '나쁜 환경 정복하기', '공부 효과 쑥쑥 높이는 법' 등 독특한 아이템과 아울러 만화 <뚜벅이의 공부 완전정복 시리즈>가 눈길을 끈다.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던 주인공 뚜벅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공부와 친해지는 과정을 파트마다 만화로 그려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더해 준다.

다양한 콘텐츠는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스스로 공부할 마음과 의지를 심어주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 자신의 소중한 꿈을 펼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유아, 유치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이재록 목사 키즈 바이블 스터디도 발간할 예정이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무엇보다 영적인 믿음을 심어주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이로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북스리브로 등 서울 시내 유명 대형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문의: 02-837~7632 우림북).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아브라함의 선(1)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8~9)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해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도 목적이조차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했지요. 또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에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베풀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하다 인정하시고 깊이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아브라함은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관용’이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양순’이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이도 가하고 저도 가한 마음이 되 그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이러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임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떠한 말과 행함 속에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취하도록 선택권을 양보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따라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올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롯도 더불어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둘 다 소유가 불어나자 더 이상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가축이 함께 거하기에는 물도, 목초지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8~9절에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질서상 자신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도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이에 롯은 기름진 땅을 택해 떠나지요.

여러분이 만일 롯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롯처럼 얼른 좋은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촌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도리를 알고 은혜를 안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척박한 땅을 먼저 택해서라도 삼촌에게 좋은 땅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사양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 떠났으니 그 마음됨이 어떠한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 어떤 서운함이나 아무 걸림이 없었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과 이도 저도 가하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양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서 상대를 섬기니 소자에게도 자신이 누릴 권리를 내주고 더 달라 해도 가까이 줄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관용의 마음이 얼마나 임해 있는지요? 만일 여러분에게 있

는 물건 10개를 상대가 달라 할 때 몇 개나 줄 수 있는지요? 사람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대가 10개를 달라 하면 다 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 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입니다.

2. 아브라함은 사심이 없고 정직하며 성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좋은 그릇으로 정직하고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모든 일을 철저히 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완벽하게 이루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중심에서 인정하는 낮은 마음이 되 하나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직하고 성실히 행해 나가니 곧 축복의 길이 됐지요.

소돔 땅에 거하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들을 이끌고 나가 롯을 구하고 소돔 왕에게 승리를 안겨 줍니다. 이에 소돔 왕은 그에게 전리품을 주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네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창 14:23) 하며 거절합니다.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그는 사사로운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훗날 자신이 더 부유해졌을 때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에 단호히 사양했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좇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잠언 28장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는 어떠한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헛 족속이 장사할 굴을 거저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매장지인 막벨라 굴을 얻었습니다. 이 또한 조금도 사심이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그 마음에 가득함을 보여 주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확실하게 자신의 소유로 삼은 일은 선의 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훗날 그들의 마음이 변해 땅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이 나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잘잘못을 가리며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일곱 마리를 주면서 우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히 합니다. 상대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자신의 편에서 먼저 화평을 좇고 이후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상대의 잘못만 꾸짖고 말았다면 아비멜렉은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 할 수 없이 물러나는 것이기에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시 궁지에 몰거나 기회가 되면 우물을 늑탈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피해를 보상해야 할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우물 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마음 중심에서 아브라함에게 굴복하고 그 후로는 우물을 넘보지도 않았습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선의 지혜로써 무슨 일이든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의 소지도 없이 화평하게 잘 마무리됐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도 선의 지혜를 소유하면 원하는 바를 방해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혹여 내게 잘못된 상대라도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선을 사모해 자신의 것도 내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이루는 것은 물론, 사심 없이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마다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일주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되려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여쭙는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인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답변하신다.

어린이의 선하고 좋은 점을 본받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생각이나 행동이 단순해야 한다

보통 어린이들은 생각이나 행동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영적으로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잣대로 재고 걸러서 듣고 자신이 볼 때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선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생각속에

바라보게 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교양이나 지식, 사고방식 등에 맞춰 이해하므로 오해가 생기고 판단하며 정죄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곧 해와 달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며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등 기사와 표적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더구나 자신은 섬김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섬기고 낮아져라 하고, 오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어 주라 하며,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 하고, 미운 자가 오리

동행하자고 하면 십 리까지 동행해 주라 하니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이유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즉시 순종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같이 단순하게 진리를 배우는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순수’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음’이다. 곧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마음에 악한 것, 더러운 것 등 불순물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도 반응을 잘한다.

예를 들어 순수한 어린이들은 잘 웃고 운다.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같이 따라하고, 토라졌다가도 어르고 달래면 금방 웃고 즐거워한다. 형이나 동생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울면 자기도 같이 서럽게 울고, 엄마가 아프면 함께 슬퍼한다.

반면에 순수하지 못한 어른들은 대체로 마음이 무덤덤하다(눅 7:32). 세상을 오래 산

만큼 세상 때가 묻고 비진리에 물들어서 강박해지고 감정도 무뎠기 때문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소소한 일이라도 선한 것을 보면 쉽게 감동을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에 사모함이 승하고 동일한 간증을 여러 번 들어도 그때마다 감동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악이나 비진리에 대해서도 민감해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는다.

반면에 영적인 어른은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을 덜 느낀다. 마음에 비진리가 많이 물든 만큼 악을 행하면서도 무감각하다.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오히려 영적으

로 어른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도 본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타협하다보면 죄에 대해 마음이 무뎠고 관대해진다.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은혜를 쉽게 저버리기도 하고 임의대로 행하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신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 진리의 말씀,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계 21:2)은 어린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들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남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선뜻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자신이 어른들보다 지식도 부족하고 힘도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영적인 어린아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소자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섬긴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중심에서 고백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결코 판단하거나 어기지 않고 무조건 순종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신다. 겸손한 사람은 소자의 말에도 귀기울이며 자신을 발견해

부족한 모습을 변화시킨다. 마음 중심에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과 지혜, 부와 명예, 권세와 지위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2013.5.5~5.11

주요 프로그램 안내!

May 5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5-9 • 믿음의 분량 20-24 • 일곱교회 9-13 • 창세기 강해 74-78 • 천국 38-42 • 온전한 믿음 • 온전한 선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복 4-8 (이수진 목사) • 빛을 발하는 성전 (이희진 목사) •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신동초 목사) • 언약계 1 (정구영 목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1-14 (정구영 목사) 	<p>간증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천 투데이 42-46 • GCN 간증 스페셜 10, 11, 17, 18 <p>해외 성회 시리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연합대성회 3 •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종합편 	<p>찬양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N 파워플레이즈2 14-18 • 찬양과 경배 3 23, 24, 27-29, 62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2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p>
----------------------------------------------------------------------------------------------------------------------------------------------------------------------------------------------------------------------	--------------------------------------------------------------------------------------------------------------------------------------------------------------------------------------------------------------------------------------------------	------------------------------------------------------------------------------------------------------------------------------------------------------------------------------------------------------------------------------------------------	-------------------------------------------------------------------------------------------------------------------------------------------------------------------------------------------------------------------



“예담이 주치의는 바로 주님이세요~”

강보금 집사 (1대대 1교구, 1-1여선교회)

아들 예담이가 태어난 지 백일쯤 됐을 때, 얼굴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겨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료됐지요. 세 살 때에는 아빠 박희울림 집사가 앓던 피부묘기증(두드러기성 피부염)으로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그것도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온전해졌지요.

올해 다섯 살이 된 예담이는 중이염으로 인해 가끔 귀가 아프다고 칭얼대곤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밤에는 귀가 많이 아팠던지 울다 지쳐 잠이 들었지요. 2시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예담이가 두 눈을 꼭 감은 채로 “나가! 나가!”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예담아,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예담이는 “뱀이... 뱀이...” 하며 울먹였지요.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은 후 예담이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난 예담이는 이제 귀가 아프지 않으며 부활절 공연을 보여 달라고 했지요. GCN 방송(www.gcntv.org)에서 방영되는 공연을 보던 예담이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보고 “나도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치료받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경에는 폭 자고 일어나더니 하나도 안 아프다며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귀에 대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중에 예담이가 말했던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담아, 무엇을 본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담이는 “귀에 까만 뱀이 있는 게 보여서 ‘나가, 나가’ 소리질렀더니 꼬보꼬불 나가서 지옥으로 갔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했지요. 이 일은 예담이에게 큰 체험이 됐고, 그 후 더 밝고 씩씩한 어린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제가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김환상 성도 (1대대 9교구, 3-3남선교회)

저는 교회에 다니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바쁜다는 핑계와 유교집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23년 만에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2012년 8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던 아들 준영이가 예전과는 달리 몰라보게 변화된 것입니다.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들어오는 일도 없어지고 착실히 공부에 전념했지요. 뿐만 아니라 틈틈이 말씀 무장하고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1월경에는 아들이 가정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내심 기뻐하던 저는 즉시 승낙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내 홍성심 권사와 딸 은정이가 저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요.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의 자기주장이 강하고 다혈질인 남편을 늘 받아주며 맞춰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변화된 아들의 모습과 아내와 딸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 성경공부를 시작했지요. 23년 만에 교회에 가는데 최소한 성경을 한 번 읽어야겠다고 작정하고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잡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성경공부를 하며, 아내에게 4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에 나갈 거라고 말했지요. 아내는 매우 기뻐하며 이왕이면 부활절인 3월 31일부터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3월 31일 새벽 4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안경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이었지요. 평소 돋보기를 쓰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덮으려고 하다가 다시 보는데, 서서히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또렷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과 함께 주일 대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저녁예배까지 참석해 성찬식에도 동참했는데 신기한 체험을 했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설교 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실 때 조금씩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후 성찬식 때 떡을 받아 입에 넣는 순간, ‘이것은 예수님 살을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온몸이 후끈해지면서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난생 처음 평평 울었지요.

나중에서야 이것이 통회자복이며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임을 깨우쳤습니다. 그 뒤 술과 담배를 끊고, 수시로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 당회장님의 설교를 듣고 있지요. 저도 믿음의 반석에 서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고자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지 못했기에 앞으로는 마음껏 도와주고 싶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왼쪽부터 딸 김은정 자매, 김환상 성도, 아내 홍성심 권사, 아들 김준영 형제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0번지 백성 8/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아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